# 항복 대신 자발적인 피정복

## (출24:1~18)

7.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8.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9.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칠십 인이 올라가서
10.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 같이 청명하더라
11.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항복대신 자발적인 피정복>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항복대신 자발적인 피정복'
'피정복'이라 함은 피를 흘리면서 정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동적(被動的)으로 정복당함을 말합니다. 자발적인 피정복은 내가 자발적으로 정복을 당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항복하는 대신에 자발적으로 정복당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선민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반드시 지켜져야 할 내용입니다.
찬송가에 "손들고 옵니다."라는 가사처럼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항복하는 것과 피정복은 다릅니다.
어느 장로님께서 굉장히 사업에 힘들어 하시고 계셨는데 어느 날 대화를 하는 중에 도저히 사업을 끌고 갈 수가 없어서 "사업에 완전히 항복하셨다"라고 하시는데 그분의 표정이 상당히 밝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어디 항복하는 사람의 표정입니까?"라고 했더니 그 이유를 말씀해주십니다. 제일 빚을 많이 진 제1채권 은행으로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그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고 여쭈어봤더니, 은행이 회사를 경영하면서 이익금을 자기들의 빚이 갚아질 때까지 분할해서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가져가면 회사가 망하므로 분할해서 가져가고 빚이 다 청산되고 나면 본래의 경영권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바로 은행의 법정관리로 들어간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가 당분간

경영을 안 한다는 것뿐이지 백번, 천 번을 해도 좋을 것 같고 손해 볼 것이 없었고 결국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은행 빚을 다 갚으시고 회사를 돌려받아서 잘 경영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항복은 전략적 항복입니다. 어쨌든 항복은 나의 모든 권한을 적에게 이양하는 것으로 저항을 하다하다 안 돼서 도저히 극복할 수가 없어서 그 힘에 눌려서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항복과 자발적인 피정복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항복할 때에는 적에게 저항하다 눌려서 굴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그 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적의 손길이 닿고 적의 권한이 나를 움직여가고 있지만, 마음으로 적을 좋아하지 않고 마지못해 하는 것입니다. 전략적인 항복일 때에도 결코 채권자인 은행을 좋아해서 항복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은 여전히 좋아하기는 내 회사를 좋아하는데, 그 회사를 살리려는 자구책으로 은행에 모든 권한을 이양하는 것입니다. 항복은 이처럼 상대방이자 적을 마음으로는 좋아하지 않으면서 굴복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피정복은 나를 정복해 달라고 소원하면서 상대방의 권한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진짜로 좋아하고 사랑할 때에 자발적인 피정복을 원하게 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항복하는 뜻으로 이해했었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대항하면서 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항하고 저항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이 세상의 어느 누가 당해낼 수 있습니까? 원자폭탄 100기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 저항할 수 있습니까? 빌게이츠의 돈과 삼성의 돈을 다 합친 정도면 저항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 저항을 하게 되었습니까? 내 삶을 내가 정복하려고 하면서 저항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복한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이를테면 영어 완전정복, 반찬 만들기 완전정복, 데이트 완전정복은 남녀 간의 데이트를 정복한다는 것으로 데이트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잘 끝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데이트를 하겠다고 기쁜 마음으로 만났다가 싸우고 헤어지는 적도 많고, 우울한 마음으로 헤어지거나 회의에 차서 헤어질 때도 많지 않습니까? 또 직장생활 완전 정복은 직장생활을 잘해서 때가 되면 승진을 하고 실적도 올려나갈 수 있는 것이고, 자녀양육 완전정복, 부부관계 완전정복… 이처럼 '정복'이라는 말이 모든 삶에 다 따라다니는데 그 정복에는 도식이 있습니다.
정복자의 행동 패턴은 먼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그대로 안 되므로 걱정근심하고 불평불만이 나오는데, 이것이 삶을 정복하려는 태도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살던 시절의 아담과 하와의 삶은 완전히 하나님께 정복당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정복당함이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정복당한 것이 아니고 항복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복당하기를 원하면서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항복과 자발적인 피정복의 가장 큰 차이는, 피정복은 내가 정복하려는 대상을 좋아하고 사랑할 때에 그에 의해서 정복당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항복은 나를 정복하려는 대상을 내가 싫어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힘으로 굴복 당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살다 살다 안 되니 이제는 하나님께 항복하겠다며 적용을 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복이라는 단어가 맞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사업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막으셔서 안 되므로 항복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식의 항복이 아닌 자발적인 피정복을 원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듣습니다. 그 뒤로 23장 마지막 부분까지 해주신 말씀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혼자 들은 말씀으로 내려와서 그것을 파피루스 종이에 적어서 언약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언약서를 읽어주며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겠느냐고 물으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므로 언약이 체결됩니다. 그 언약 체결을 축하하는 예식이 바로 칠십 명 장로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처럼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축하연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10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 같이 청명하더라”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보좌에 앉은 분으로 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을 보고 발아래를 보았습니다.
‘발아래를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선민이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 하나님의 계약 상대자인 선민의 위치가 하나님의 발아래에 위치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발아래에 위치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눅22:44절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라고 다윗이 한 예언을 인용하시는데, 결국은 발아래에 두겠다는 말씀이며 이것이 결국 원수를 정복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계약의 상대자인 선민의 위치가 하나님의 발아래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정복된 상태의 삶을 살라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계약 상대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정복된 자로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발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 같이 청명하더라’라고 나오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일까요?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고 하십니다.
‘돌판에 새겼다’는 것은 ‘항구적’이라는 의미로 이스라엘이 늘 이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의식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정복된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복된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하는 모든 행동은 정복자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돌판에 새겨진 말씀에서 일점일획이라도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벌써 숨통이 꽉 조여오고 질식할 것 같습니다. 십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23장까지 하신 모든 말씀들이 돌판에 새겨지는데, 그 새겨진 말씀에서 일점일획이라도 내 행동이 어긋나거나 벗어나거나 경계 밖으로 튕겨나가거나 하는 일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과 계약 당사자의 위치로 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말씀이고 계약이 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5: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시는데 내가 발아래에 있는 피정복자로 어떻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청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발아래에 자발적인 피정복자가 될 때의 마음가짐은 청명한 마음가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5: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계약 맺은 상대자는 하나님을 뵈면서 가야하는데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결하다'라는 것은 하늘이 청명한 것처럼 내 마음이 맑고 밝고 깨끗해야 한다는 것인데 세상일인 돈이나 자녀, 인생의 목표, 꿈과 비전이 마음에 담길 때에는 내 마음은 밝지도 않고 맑지도 않고 걱정근심하고 불평 불만합니다. 발아래에 있는 자는 피정복자인데 피정복자의 마음은 청결해야 하는 것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그리워하고 좋아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연관성을 가질까요?

하나님이 자꾸 틀어막으시고 내 힘으로는 어쩔 수없는 항복하는 자의 마음가짐이 아니라, 자발적인 피정복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좋아하면 돌판에 새겨진 모든 말씀의 일점일획도 어긋남이 없이 다 지켜질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정말 좋아하는 남자나 여자를 만나게 된다면 그 남자와의 관계가 조금도 어긋나질 않는 것이 소원이 됩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남자나 여자를 만나면 그 상대방의 마음을 머리카락하나 만큼도 상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 좋아함의 특징입니다. 게으른 아들에게 이렇게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을 때 그 여자가 아침 7시에 일을 나간다고 하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샤워하고 향수뿌리고 그 여자를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 데려다 주고 와서 다시 잠을 잡니다. 엄마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지만 이게 가능해집니다. 불가능해보였던 행동들이 가능하게 되는 이유는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버지들이 가정에 대해 책임감을 갖기에 회사에 나가서 굴욕을 당해도 참고, 온갖 어려운 일이라도 이를 악물고 어떨 때에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이 아픈데도 참으며 하루에 10-12시간씩 일을 합니다. 이런 마음이라면 하나님 말씀 또한 못 지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항복하는 자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막으시니 할 수 없이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만 이런 상태로는 일이 해결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약의 상대자로서의 본래 위치를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계획하신대로 이끌어 가실 수도 없습니다. 계속 내 마음 속에는 정복자로서의 죄악 된 주체성이 자꾸만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할 수 없어 항복할 때에도 내 마음으로 좋아하는 것을 놓지 않을 뿐, 결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업에 대해 항복하고, 내 계획에 대해 항복하지만 내 능력이 모자라서 항복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돌판에 새겨진 모든 계명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을 뿐더러, 지키더라도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돈을 하나님께 받기 위해 상황을 조작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돈 버는 길이라서 지킨다면 좋아하는 것은 돈이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약의 상대자는 정복당한 발아래에 있는 자로 모든 권한을 다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마5:34-35절에 주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발로 디디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직장을 나가면 직장도 하나님이 발로 딛고 계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하나님의 계약 상대자인 선민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직장에서 하나님께 정복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내가 승진을 좋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좋아하고 청결한 상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계약 상대자가 되시려면 하나님의 발아래에 머물러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정복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을 발로 딛고 계십니다. 책장에는 책이 들어가야 하고 거기에는 김치그릇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은 그렇게 되면 불결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좋아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승진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께 정복당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그 직장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정복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사장님이 일에 대해 하나님께 반하는 이야기를 하신다고 해도 하나님께 정복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발로 딛고 계시므로 나는 그 분의 계약 상대자로서 언제나 정복당한 사람의 위치에 서서 발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발아래에 있는 그것이 항복이 아닌 정복당한 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내게

서 이루어져 나가려면 내 마음이 하나님만을 좋아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만 좋아해야 한다는 점이 어떤 모습으로 그림 그려집니까?
읽지 않은 마지막 부분에 모세가 돌판을 받으려고 시내 산에 올라갔을 때에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야로부터 모세를 가립니다. 구름 위로 시내 산의 봉우리가 있는데 모세는 그 구름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마음은 구름 위로 올라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그리워서 구름 위(운봉, 雲峰), 구름위로 솟아난 봉우리, 하늘을 이고 있는 구름 위로 마음이 가 있는 것입니다.
구름을 기준으로 아래는 인간 세상이고 위는 하늘이기에 인간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십자가에서 죽자고 하는 것은 기술적이고 기계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인생을 효율적으로 살기위한 테크닉이 아닙니다. 죽자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좋아하는 길이 그 길 밖에 없기 때문이고, 세상에 대해 죽어야 마음이 구름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이 땅에서는 하나님에 의한 진짜 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한 정복이 이루어 질 때에 계명에 쓴 모든 250만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일일뿐만 아니라, 나 개인의 독자적인 삶에서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뜻도 다 이루어져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지면 하나님의 뜻이 송이 꿀같이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돈을 좋아하면 하나님의 “이래라, 저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잔소리로 들리고 귀찮아지고 불가능한 요청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의 사모님을 보면 다 버리고 남편 따라서 아프리카로 갑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그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 남편이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인데 사랑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제일 강하게 요구되는 것은 “이거해 주세요, 저거해 주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정복해주시고 내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정복자의 권한 안에 나의 행동과 말이 머물게 해주세요.”라고 원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시면서도 하신 기도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신 것은 아버지를 사랑할 때에 십자가 사건으로 나를 정복해 주시라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계약 상대자로서 선민의 위치가 정해집니다. 선민의 위치는 이 땅을 밟고 계시는 하나님의 발아래에 있습니다. 그 발아래에서 피정복 된 상태를 즐기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좋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기껏해야 항복 밖에는 할 수 없고, 항복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기신 모든 말씀과 계획이 내 몸에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복도 안하기 때문에 항복도 대단합니다. 끝까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자기의 목표대로 성취하려고 강청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살아가며 항복조차 하지 않습니다. 항복하는 훌륭한 신앙인들에게 말씀드리되, 더 훌륭한 자발적인 피정복의 상태로 가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상대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피정복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에 의해서 피정복 되기를 꿈꾸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그리워서 자꾸만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세상을 정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이고 자꾸만 고개를 듭니다.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어서 하나님에 의해 피정복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다보면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경험되고 하나님과 친해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진 정도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고, 주님이 말씀하신대로 일점일획도 어긋남이 없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지켜지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좋아하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중에 점차적으로 이런 경지까지 우리 모두가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는 다른 것을 좋아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는 항복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나를 정복해주는 것을 제1 소원으로 갖게 되는 선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